대전 원도심 골목의 재발견

대전사회혁신센터 원도심 골목길 활성화 사업
최종 7개팀 선정… 다양한 시각의 결과물 예고

대전시사회혁신센터가 '원도심 골목길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최종 7개팀을 선정했다. 30일 혁신센터에 따르면 사업은 원도심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보존하고 골목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프로젝트다.

선정된 7개 팀은 오는 11월까지 각자의 다채로운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원도심 맛집과 감성 공간을 잇는 도보 투어, 골목 빵집을 연계한 관광 플랫폼 개발(빵BTI), 필름카메라를 활용한 아날로그 출사, 갤러리와 숨은 맛집을 담은 책자 제작, GPS 연동 스마트 골목여행 앱 개발, 30년 이상 노포의 이야기를 담은 책자 제작, 철도 신호등 벤치와 태양광 조명 설치 등이 진행된다.

이상호 혁신센터장은 "선정된 7개 팀의 아이디어는 원도심 골목길이 가진 잠재력을 각자의 방식으로 빛낼 보석과도 같다. 개성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매력적인 골목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육상 숲 서천군청 서민준 등 충남선수단 하계U대회 활약

태권도 조호연·최지우 금·은
충남체육회 체조 문건영 동2

2025 하계 U대회 육상 남자 계주 400m 금메달리스트 서천군청 서민준이 지난 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충남선수단이 독일 라인-루르에서 막을 내린 2025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에서 금·은·동메달을 잇따라 획득해 충남체육의 저력을 과시했다.

충남체육회에 따르면 서천군청 서민준이 육상 남자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태권도 품새 단체전에서는 단국대 조호연과 천안출신 용인대 최지우가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특히 충남체육회 문건영은 기계체조 마루와 평행봉 종목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 광주체육고를 졸업하고 올해 1월 충남체육회에 입단한 문건영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종합 4위를 기록하며 대표팀에 발탁됐다.

문건영은 지난 6월 제천에서 열린 아시아선수권대회 마루 종목 동메달을 획득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세계대회에서 연속 입상해 대한민국 남자 체조의 기대주로 떠올랐다.

문건영은 "국가대표로 참가한 첫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따 기쁘다"며 "앞으로 더 큰 무대인 올림픽을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김영범 충남도체육회장은 "문건영을 비롯한 충남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탁월한 기량을 발휘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엘리트 선수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내포=이석호 기자 ilbolee@ggilbo.com

AI 영상제작 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전교육정보원 내일부터

대전교육정보원이 1일부터 14일까지 본관 콘텐츠 제작실에서 초·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 20팀, 총 100여 명을 대상으로 'AI 활용 영상 콘텐츠 제작 학생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AI를 활용한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뉴스 제작 체험으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5명 내외의 가족 또는 동아리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프로그램은 열흘 동안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각각 45분씩 총 20회 진행된다.

리모델링된 콘텐츠 제작실은 소규모 영상 제작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안정적인 촬영 환경과 온라인 강의 송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대전교육정보원 박현덕 원장은 "아이디어를 영상 콘텐츠로 구현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영상 콘텐츠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역량을 높이고 나아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국내최대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오늘 개막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일까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 등이 주관하는 '2025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이 31일부터 내달 2일까지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은 창의적인 발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발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 청소년 발명 행사다.

행사는 31일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제38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시상식 및 전시회, 대한민국 학생창의력 챔피언대회 본선 및 시상식, 발명·지식재산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에는 6843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이 중 195건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동상 이상 수상작은 행사 기간 동안 전시관에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관람 및 체험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입장은 무료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명교육포털 사이트(www.ip-edu.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중 기자 kimhj@ggilbo.com

충남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범 평가기관 선정

충남대학교병원이 2025년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시범평가 사업 평가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신종 감염병 발생 시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지역사회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병상 운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된다.

충남대병원은 시설기준 적합성, 근무인력 적정성, 진료 및 운영, 가점항목(감염병 진료실적, 중환자 진료역량 등) 등을 충족했다. 조강희 원장은 "충남대병원은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서 7회 연속 1위를 달성하며 최고 수준의 감염병관리시설과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다. 지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중부권 감염병 대응을 선도하는 중추적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제3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중·고하키대회에서 우승한 아산고 하키부가 우승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산고 제공

전통의 하키강호 아산고, 문체부장관기 우승

아산고등학교(교장 김범진) 하키부가 지난 25일 전북 김제하키경기장에서 열린 제3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중·고하키대회 남자 고등부 정상에 올랐다. 아산고는 결승에서 용산고를 3:0으로 꺾고 우승을 거머쥐었다.

최우수선수상은 함영웅(3년) 군이, 지도상은 김성현 코치, 감독상은 이성진 교사가 각각 수상했다.

이성진 감독은 "위기의 순간이 많았지만 서로가 하나 돼 아산중학교와 함께 동반 우승할 수 있었다"며 "선수들이 흘린 땀과 노력에 박수를 쳐주고 싶고, 열심히 지지하고 응원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 동정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개막식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31일 오전 10시 30분 DCC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5 청소년 발명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한다.

◘ 부고

▲신의식(충남도교육청 소통담당관) 씨 부친상= 30일 예산중앙장례식장 VIP실, 발인 8월 1일 오전 8시 30분, 장지 홍성추모공원/국립기억의숲(보령), ☎010-5522-6226

대전우리병원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 99.7점 최고등급

대전우리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1차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에서 종합점수 99.7점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67.6점)을 크게 상회했다.

30일 우리병원에 따르면 평가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영상검사의 질과 적정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것으로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전문의 판독률, 재촬영률 등 총 14개 세부 항목에 걸쳐 정량·정성적 기준으로 이뤄졌다.

우리병원은 조영제 사용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100%, MRI 검사 전 환자평가 실시율 99.3%, CT·MRI 촬영 후 24시간 이내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완료율 92.6%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평균을 압도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동일기관 및 전원 환자 대상 동일 부위 재촬영률이 모두 0%로 나타나 불필요한 반복 촬영 없이 정확한 검사와 판독이 이뤄졌다는 걸 증명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이동노동자에게 얼음물 전달

대전시 노사민정협의회는 30일 대전도시철도 1호선 유성온천역 일대에서 폭염 속 플랫폼 노동자 응원 캠페인을 열고 이동 노동자에게 생수와 폭염 예방 물품을 전달했다. 캠페인은 지난 4월 발표한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공동선언의 실천 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폭염에도 묵묵히 일하는 배달·택배 기사 등 이동 노동자를 응원하고 시민과 함께 노동 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얼음물 300병과 폭염 예방 물품 330세트를 직접 나눠줬다. 폭염 예방 물품은 ㈜KT&G와 대전열병합발전㈜ 후원으로 넥쿨러, 쿨토시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캠페인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근로시간 준수, 휴게시간 보장 등 4대 기초노동질서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리플릿도 배포하며 근로자 권리 인식 제고와 건강한 노동시장 조성의 의미를 더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예산 호우피해 농가 복구활동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과 도 인사담당관실은 3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예산지역 농가를 찾아 침수 피해 비닐하우스와 주택 주변의 폐기물을 정리하는 등 수해 복구 활동을 펼쳤다. 충남도 제공

소외 이웃에 삼계탕 나눔 한밭사랑봉사단(단장 정대영)은 중복을 하루 앞둔 29일 둔산동 폴라인피부과 이은주 원장의 후원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 50여 가정에 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삼계탕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라온사진봉사단 제공

카자흐서 해외체험학습·의료봉사 우송정보대 보건의료행정과가 지난 19일부터 9일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딸띠고르간 공립병원에서 해외 현장 체험학습 프로그램 및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한 가운데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송정보대 제공